

월간 <작은것이 아름답다> - 작아가 만난 사람

앞 다 털군 빈가지에 자꾸 눈길이 갑니다.

빈 가지를 흔들고 지나가는 바람이 깊은 겨울로 달려가는 이 계절의 마음 같습니다.

녹색연합 월간 <작은것이 아름답다> 편집장 김기돈 [REDACTED]입니다.

12월 18일(목) 오전 10시 여정재단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선생님께 드릴 질문을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다들러나 나리 1803 5월 5일

1. 선생님의 삶을 가로질러온 화두는 무엇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껏 활동해 오시면서 품고 있던, 삶과 사건과 일상에서 늘 담아내고 풀어 오신 화두는 무엇입니까?
2. 박영숙은 [REDACTED] 다. 박영숙 선생님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어떠한 단어, 색깔,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그 단어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선생님께서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거나 결단을 내려야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곤 하셨는지요. 그러한 결단과 선택은 늘 후회 없는 일이었는지요. 선생님의 선택과 결단 가운데 가장 최선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회개할 것, 반성할 것, 후회할 것
4. 선생님께서는 지금껏 늘 현재를 살아오셨습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재를 마주하며 현장에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이 곧 일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현재를 만나는 방식, 지금을 마주하는 방식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5. 어린 박영숙이 꾸었던 꿈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지금 뒤돌아보시면 그 꿈은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어왔는지요.
6. 여성운동을 하시거나, 정치일선에 계시거나, 환경운동의 영역에 계실 때나 한결같이 일관성을 가지고 중점을 두신 가치나 실천이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어떠한 일관성을 가지고 걸어오셨는지요. 2013년 12월 18일
7. 불도저에 녹색페인트를 칠하고 강과 산과 갯벌을 파헤치면서 '녹색환경'을 입에 올리는 파벌치한 정권이 개발주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대응하는 바탕은 생태적 감성과 가치인데, 자본과 경제논리에 파묻혀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생태적 감수성과 녹색가치를 어떻게 드러내고, 이 환경위기 시대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8. 지구온난화, 지구생태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지금까지 해온 활동에 비추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2013년 12월 18일
9. 최근에 <생을 마칠 때까지 현역으로 살고 싶다>를 펴내셨습니다. 생을 뒤돌아보는 일은 늘 수많은 굴곡과 감동, 크고 작은 일상을 마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을 꿰뚫어 뒤돌아보시면서 어떠한 감회를 느끼셨는지요. 2013년 12월 18일
10. 선생님은 공적인 삶을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삶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CEO NEWS 인터뷰 요지

1. CEO NEWS신문의 독자에게 간단한 인사 및 노고에 대한 치하

- ## 2. 한국 기부문화의 현주소

- ### 3. 한국여성재단이 하는 일과 성과

- ### 3. 일선 경영인들의 사회봉사 참여의 필요성

4. 여성들의 사회 활동 참여의 필요성(과거 힘이 필요로 했던 농경, 공업 사회를 지나 지식기반 사회에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5. 여성들의 사회 활동 참여와 폭을 넓히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일들 *2020년*

6. 한국여성재단을 돕고 있는 기업들(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어떤 형태로 기여 하는지 등)

7.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원로로서(박영숙 이사장님이) 현재의 한국을 진단 해본다면

8. 향후 한국여성재단의 목표와 향방(현재 여성재단의 추진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9. 한국 경영인 신문사를 애독하는 최고경영인들에게 하는 당부
의 말 *경영진 담당자로서 인사, 재무, 마케팅, 생산, 영업, R&D, IT, HR, etc.*

- ## 10. 기타

팩스발신 총 2매

● 박영숙 이사장님 라디오 인터뷰에 관한 건

: 여성재단의 이사장님으로서 성과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
SBS 라디오 생방송 러브FM 103.5 손숙 김범수의 아름다운 세상

1. 아름다운사람들 코너 : 아름다운 세상을 일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을 소개하는 전화 인터뷰 코너
2. 인터뷰 요청 시간 : 오전 9시 40분 경 부터 10분 정도 소요
3. 담당 작가 : 전옥란, 이모란 [REDACTED] - 작가가 인터뷰 전 날 또는 아침에 확인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
4. 기획의도 : 5월 한 달간 "희망의 100인 기부 릴레이"를 한국여성재단의 기부 릴레이 참여주자들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함께 이어가면서 기부문화에 앞장서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여성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대중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질문 및 응답 근거 자료>

■ 이번 100인 기부 릴레이의 특색, 의의

1.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새날기금」 마련
: 실제로 소외여성을 직접적으로 돕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성리더쉽 육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참여가 매우 높아짐.
2. 여성리더를 키우는 기금 마련에 다수의 여성리더의 실질적인 참여
- 여접사회, 여의사회, 여약사회가 하나의 줄을 만들어냄
- 여성장관을 이끔이로 하는 줄 : 강금실, 김화중, 지은희 장관
- 여성계 리더 이끔이 : 여성민우회, 여성유권자연맹, 여세연, 한여노협 등
- 이길여, 김성주, 장명수 등 각계 각층의 여성리더 참여
3. 일반 대중의 참여 확산
- 적은 기부금액으로 다수 참여 : 지난해에 비해 4~50%의 기부자가 늘었으나, 기부금액은 절반 가량으로 떨어짐. 이는 현실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도 영향이 있지만, 일반 대중의 참여가 높아졌다는 반증임.
- 특히 가수 이승철, 이상은, 개그우먼 김미화 등 연예인 이끔이주자들의 팬들이 인터넷을 통해 100인 기부 릴레이의 취지와 의의에 동참하고 소액기부
4.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한 국회의원들의 참여가 지난해에 비해 저조했으나, 한명

거세기
여성 CEO

여성 CEO
공직선거관리규칙

MBC 토크쇼 임성훈과 함께

(150-7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단지 / Tel / Fax 1969 / 김영환)

문서번호: 뽕센(기)440-1595

시행일자: 2004. 1. 12

경 유:

참 조: 기획공보 신희정 선생님

세 목: 박영숙 이사장님 방송 출연건

1. 귀 제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MBC '토크쇼 임성훈과 함께'에서는 2004년 새해날 맞아 우리주위의 이로운 이웃들과 여성,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제를 박영숙 이사장님을 모셔 이야기할 예정입니다.특히 IMF 이후 사회문제로 떠오른 실직 여성가장이나 가정의 생계난 체임져야하는 여성들이 당면한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여성계의 대표이신 박영숙 이사장님을 꼭 모시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3. 프로그램 개요

가. 프로그램명 : MBC 토크쇼 임성훈과 함께(네임 오전 9시 45분 10시 45분 방송)

나. 방 송 위 : 2004년 1월 20일 (생방송) 오전 9시:45분

다. 방송 개요 : 출연자 :박영숙 이사장님 ,김심수 삼남회대 총장

라. 대본 및 자세한 일정은 목요일까지 가능합니다.

마. 담당PD : 박윤희 [REDACTED] 남수희 [REDACTED]
(담당작가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문 화 방 송 사 장

외주 제작국 국장 권길

이사장님께

MBC 토크쇼 임성훈과 함께 라는 프로그램 출연요청입니다.

보내드린 공문의 내용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받은 전체의 내용이고,

목요일까지 전체 방송 콘티를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이 저소득모자가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통계나 각종 보도 자료들과 함께 제시하고

“사랑의 친구들” 행사 보도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 논의가 주가 되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보내주기로 했고

받는 대로 이사장님께 재송부 하겠습니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길이 미끄럽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여성재단

취재요청서

우 503-301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1동 617-8번지 / 전화(062)676-6688 / 팩스(062)674-5255

문서번호: 203-1016

시행일자: 2003. 10. 16.

(경유)

수 신: 박영숙 이사장님

참 조: 이수인 총무팀장님

선 전		지 시	
첨 수	일자 시간 번호	결 재	
	처리과	공 합	
	담당자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3년 6월 1일자로 창간한 저희 시사종합 월간 「굿뉴스피플」은 지방 본편과의 흐름에 맞춰 전국 각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각 분야의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는 물론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언론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3년 11월호 표지모델로 귀하의 기사를 실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 첨(질문요지)

☞ 뒷면참조

편집국장 김성원



(주) 굿뉴스피플

* 별첨 (질문요지)

1. 오랜만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건강은 어떻게 유지 하셨는지요.
 2. 이번에 금강산에 다녀 오셨는데 감회가 깊은줄로 생각합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3. 앞으로 봉일이 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일부터 하고 싶으신지요.
 4. 한국여성재단은 언제 발족했으며 무슨일을 하고 있습니까?
 5. 여성재단이 발족한지 4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어느정도 성장했으며 목표는 얼마나 달성됐다고 평가하십니까?
 6. 여성재단이 지금까지의 활동과 앞으로 활동예정은 무엇인지.
 7. 기금조성사업 해외연대 홍보활동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특히 지역 네트워크활동과 해외연대 홍보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8. 최근 호주제 폐지 논의가 뜨겁습니다.
여성계 최대 관심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9. 정부의 여성정책은 만족하십니까?
 10. 여성의 정치진출도 여권신장의 한 방식인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21세기는 여성시대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성이 해야 할일은 무엇이고,
또 미래의 여성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천재 나라가 여러모로 혼란스럽습니다. 진단과 처방을 말씀해 주십시오.
 13. 평소 이사장님의 삶의 철학은 무엇인지요.
 14.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15.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 (활동사진 5매) (악력)

안녕하세요.

MBC <아주 특별한 아침>의 작가 김성화입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9시에 방송되는

주부 대상의 본격 시사 와이드 프로그램이며,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인 3월 19일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팀입니다.

프로그램 중 총선거획으로

'2004 총선 - 한국정치, 이번엔 꼭 바뀔시다'라는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의원님들의 진솔한 경험담을 통해서 현 정치권의 구태를 짚어 보고,

17대 총선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당선되어야 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이사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정범구 현의원이, 그리고 내일은 박경수 전의원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인터뷰 시간은 사무실 등에서 최소 1시간 이상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추가로 근래 이사장님의 활동사항을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한 스케치를 덧붙였으면 합니다.

질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Q.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정계에 입문한 계기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Q. 밖에서 보던 것과 현실 정치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괴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Q. 의정활동 하시면서 가장 주력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Q. 의정활동 당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Q. 국회 내에서 사라져야 할 정치권의 구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진솔하게 말씀해주십시오.

Q. 16대 국회에 진출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Q. 16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밖에서 본 이번 국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17대 총선에서는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신문 인터뷰 내용

- 어떤 계기로 '미래포럼'이 창립됐습니까?

- '미래포럼'은 어떤 모임입니까?

- '미래포럼'은 어떤 문제의식에서 결성하게 되셨습니까?

-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빈곤문제가 다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을 들어 사회적 대화나 사회적 합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포럼의 경우 사회적 대화에서 여성의 관점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과 미래포럼이 기여할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앞으로 활동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득문득이 활동하기
한정, 불지
소득 2인 가족 경제를 위해서는
4000만 추가 고령이 될로
안정된 소득을 보장
일자리 없는 여성 1인 25대는 11명 이상
경제활동에 동참해야

대중 언론을 내일 당
세력 수백 1000분의 일
여성 여초주도층

후진하고 동등한 사회로 만들기
취업률, 고용률, 교육률, 의료률, 문화률, 환경률, 안전률, 복지률, 건강률, 삶의 질,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사회적 연대, 사회적 책임, 사회적 참여, 사회적 리더십, 사회적 혁신, 사회적 변화, 사회적 발전, 사회적 번영, 사회적 평화, 사회적 정의, 사회적 공정, 사회적 투명, 사회적 책임, 사회적 리더십, 사회적 혁신, 사회적 변화, 사회적 발전, 사회적 번영, 사회적 평화, 사회적 정의, 사회적 공정, 사회적 투명, 사회적 책임

점점가득로
기대되고 있다

2000년 20.9%
2001년 21.9%
2002년 22.9%
2003년 23.9%
2004년 24.9%
2005년 25.9%
2006년 26.9%
2007년 27.9%
2008년 28.9%
2009년 29.9%
2010년 30.9%
2011년 31.9%
2012년 32.9%
2013년 33.9%
2014년 34.9%
2015년 35.9%
2016년 36.9%
2017년 37.9%
2018년 38.9%
2019년 39.9%
2020년 40.9%
2021년 41.9%
2022년 42.9%
2023년 43.9%
2024년 44.9%
2025년 45.9%
2026년 46.9%
2027년 47.9%
2028년 48.9%
2029년 49.9%
2030년 50.9%

1970-73 1.6844
1974-77 2.1654

2000년 20.9%
2001년 21.9% (19.4%)
2002년 22.9% (20%)

한정수준에

24명정도는
전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전반적으로
미래를 위한 모임

사회적 대화의
중심에 있는
미래포럼

24명정도는
전반에서
미래포럼

사회적 대화의

36%의
36%의

인구구조, 사회경제적 상황

명사 토크 나의 삶, 나의 꿈

VIDEO	AUDIO
MC 원경 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사와 함께 하는 시간 '원종배'입니다. 누구나 인생이란 여정을 걷다 보면 크면 작던 굴곡이 있게 마련인데요. 특히 어떤 분야에서 한 획을 긋게 된 명사들 중에는 유난히 굴곡과 고비를 겪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좀 더 순탄하게 살 수 있는 삶도 자신이 가진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어려운 길을 돌아올 수도 있었겠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명사는 남성 위주의 사회 분위기속에서 민주와화 여성의 권익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입니다.
MC + 박 이사장	요즘도 여성재단과 환경 관련 일로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이사장	이시간에 이렇게 동주 명사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시간에 이렇게 동주 명사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첨되고 있다. → 비례대표 50%~70% 할당 (정확하지 않음) → 여성 정치인 임용률 4.8~10% 이상 확대 → 2006년 5월 5일 여성 정치인 임용률 4.8~10% 이상 확대 → 2006년 5월 5일 여성 정치인 임용률 4.8~10% 이상 확대	지난달 <u>지자체선거</u>때 여성후보들이 많이 나와 세대가 달라진 것을 새삼 실감했다. 하지만 정작 당선되어 사회를 위해 일할 기회를 얻은 여성은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히) 아직도 성차별이 가시지 않은 사회분위기나 후보자 자신들의 자세 등.

정확하지 않음

동행한 후보진출

지자체 — 생활정치 여성참여 확대

강한 여의회 의원으로 권력 중심
여성들이 후보로 나서고 있다

10월 12일
정리: 11월 11일
11월 12일
11월 13일
11월 14일
11월 15일
11월 16일
11월 17일
11월 18일
11월 19일
11월 20일
11월 21일
11월 22일
11월 23일
11월 24일
11월 25일
11월 26일
11월 27일
11월 28일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12월 6일
12월 7일
12월 8일
12월 9일
12월 10일
12월 11일
12월 12일
12월 13일
12월 14일
12월 15일
12월 16일
12월 17일
12월 18일
12월 19일
12월 20일
12월 21일
12월 22일
12월 23일
12월 24일
12월 25일
12월 26일
12월 27일
12월 28일
12월 29일
12월 30일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1월 6일
1월 7일
1월 8일
1월 9일
1월 10일
1월 11일
1월 12일
1월 13일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1월 17일
1월 18일
1월 19일
1월 20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23일
1월 24일
1월 25일
1월 26일
1월 27일
1월 28일
1월 29일
1월 30일
1월 31일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2월 4일
2월 5일
2월 6일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2월 12일
2월 13일
2월 14일
2월 15일
2월 16일
2월 17일
2월 18일
2월 19일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
2월 23일
2월 24일
2월 25일
2월 26일
2월 27일
2월 28일
2월 29일
2월 30일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
3월 6일
3월 7일
3월 8일
3월 9일
3월 10일
3월 11일
3월 12일
3월 13일
3월 14일
3월 15일
3월 16일
3월 17일
3월 18일
3월 19일
3월 20일
3월 21일
3월 22일
3월 23일
3월 24일
3월 25일
3월 26일
3월 27일
3월 28일
3월 29일
3월 30일
3월 31일
4월 1일
4월 2일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
4월 6일
4월 7일
4월 8일
4월 9일
4월 10일
4월 11일
4월 12일
4월 13일
4월 14일
4월 15일
4월 16일
4월 17일
4월 18일
4월 19일
4월 20일
4월 21일
4월 22일
4월 23일
4월 24일
4월 25일
4월 26일
4월 27일
4월 28일
4월 29일
4월 30일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5월 10일
5월 11일
5월 12일
5월 13일
5월 14일
5월 15일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5월 19일
5월 20일
5월 21일
5월 22일
5월 23일
5월 24일
5월 25일
5월 26일
5월 27일
5월 28일
5월 29일
5월 30일
5월 31일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
6월 4일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12일
6월 13일
6월 14일
6월 15일
6월 16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19일
6월 20일
6월 21일
6월 22일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
6월 26일
6월 27일
6월 28일
6월 29일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7월 6일
7월 7일
7월 8일
7월 9일
7월 10일
7월 11일
7월 12일
7월 13일
7월 14일
7월 15일
7월 16일
7월 17일
7월 18일
7월 19일
7월 20일
7월 21일
7월 22일
7월 23일
7월 24일
7월 25일
7월 26일
7월 27일
7월 28일
7월 29일
7월 30일
7월 31일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8월 4일
8월 5일
8월 6일
8월 7일
8월 8일
8월 9일
8월 10일
8월 11일
8월 12일
8월 13일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8월 17일
8월 18일
8월 19일
8월 20일
8월 21일
8월 22일
8월 23일
8월 24일
8월 25일
8월 26일
8월 27일
8월 28일
8월 29일
8월 30일
8월 31일
9월 1일
9월 2일
9월 3일
9월 4일
9월 5일
9월 6일
9월 7일
9월 8일
9월 9일
9월 10일
9월 11일
9월 12일
9월 13일
9월 14일
9월 15일
9월 16일
9월 17일
9월 18일
9월 19일
9월 20일
9월 21일
9월 22일
9월 23일
9월 24일
9월 25일
9월 26일
9월 27일
9월 28일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10월 4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7일
10월 8일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15일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0일
10월 21일
10월 22일
10월 23일
10월 24일
10월 25일
10월 26일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10월 30일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2일
11월 3일
11월 4일
11월 5일
11월 6일
11월 7일
11월 8일
11월 9일
11월 10일
11월 11일
11월 12일
11월 13일
11월 14일
11월 15일
11월 16일
11월 17일
11월 18일
11월 19일
11월 20일
11월 21일
11월 22일
11월 23일
11월 24일
11월 25일
11월 26일
11월 27일
11월 28일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12월 6일
12월 7일
12월 8일
12월 9일
12월 10일
12월 11일
12월 12일
12월 13일
12월 14일
12월 15일
12월 16일
12월 17일
12월 18일
12월 19일
12월 20일
12월 21일
12월 22일
12월 23일
12월 24일
12월 25일
12월 26일
12월 27일
12월 28일
12월 29일
12월 30일
12월 31일

VIDEO	AUDIO
MC 박이사장님께서는 평생을 여성계, 정계, 또 최근까지도 여성들의 권익과 환경운동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사회운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90~80년대 한국여성노동자회 MC 삼천리 재향, 주주 - 여성노동자회 주요	박 이사장님께서서는 평생을 여성계, 정계, 또 최근까지도 여성들의 권익과 환경운동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사회운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하셨습니까?
박이사장	결정적인 계기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이 '나의 삶, 나의 꿈'입니다.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도 가장 궁금해 할 점이 많은 일을 해오신 이사장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서 가장 힘들었던 때의 말씀을 듣고 싶어할 것 같 아요.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이 '나의 삶, 나의 꿈'입니다.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도 가장 궁금해 할 점이 많은 일을 해오신 이사장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서 가장 힘들었던 때의 말씀을 듣고 싶어할 것 같 아요.
박이사장 MC 코멘트	· 어린시절(만주에서 해방맞이) · 문목사와의 만남, 무육 · 간병과 사회활동 등 여성노동자회 관련 내용 정리함 인구조사 빈곤현황 지금 NGO 활동 중임
MC	박이사장님은 여성계를 대표하는 여성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운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때는?
박이사장	혹시라도 회의를 느꼈던 시기
MC	많은 사람들이 엄두도 못낼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 다. 앞으로의 바람이 있으시다면?
박이사장	여성재단관련 '우리말들에게 밝은 미래를' (간략히)
MC +박이사장	박이사장님의 남겨진 바람은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많더라도 우리 2세대때는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 다.

10월 2

수신 : 한국여성재단 박영숙 이사장

발신 :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1. 2선 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기부문화의 어떤 점이 가장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 '기부는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외국기업의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지요?

3. 한국여성재단이 고안한 '상품판매와 기부의 연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4. 여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기부문화 캠페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월급 0.1%, 유산 1%, 친구 학교보내기 운동, 브로치달기운동, 휴대폰 기부등등)

5. '모금'과 '배분'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나요?

6. 여성재단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S> 이사장님, 위 질문서 외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사장님께서 직접 질문을 만드셔도 됩니다.
수요일 1시에 댁으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수요일 1시 댁으로 전화.

영국, 미국

인구 15%인

기부금 1%인

기부금 1%인

영국, 미국

기부금 1%인

기부금 1%인

기부금 1%인

기부금 1%인

기부금 1%인

기부금 1%인

기부금 1%인

기부금 1%인

70

장미정 기탁증본당장님

우선 창립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면이 크지 않은 관계로 많은 질문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서 요지입니다.

2004 Interview 2?
6-00 3

1. 요즘 어려운 경제에 기부가 적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부문화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재단의 기부는 어떻습니까?
2. 현재까지 재단 소식(여성의 권익이 어떻게 환원되었는지를
중심으로)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미래포럼이 발족하는데 미래포럼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4. 미래포럼은 한국여성재단과 어떤 관계입니까?
5. 앞으로 2005년 한국여성재단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NGO 신문 박혜주 기자

리사
행드론

● 박영숙 이사장님 라디오 인터뷰에 관한 건

: 여성재단의 이사장님으로서 성과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

SBS 라디오 생방송 러브FM 103.5 손숙 김범수의 아름다운 세상

1. 아름다운사람들 코너 : 아름다운 세상을 일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을 소개하는 전화 인터뷰 코너
2. 인터뷰 요청 시간 : 오전 9시 40분 경부터 10분 정도 소요
3. 기획의도 : 5월 4주간 "희망의 100인 기부 릴레이"를 한국여성재단의 기부 릴레이 참여주자들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함께 이어가면서 기부문화에 앞장서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여성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대중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질문 및 응답 근거 자료>

1. 2005년 '행복한 가족기금' 조성을 위한 100인기부 릴레이 진행을 하면서 특색 있었던 줄,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으면 몇 가지 얘기해주세요.

- 1) 다양한 분야의 리더 참여
 - 권양숙 여사 참여
 - 각당 국회의원 이꿈이로 14명 참여

수원 - 권양숙 - 노희성
한희정 - 김희정

열린우리당 김영자, 유승희, 이계안, 이목희, 이운영, 장항숙, 홍미영 / 한나라당 김애실, 이계경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릴레이되는 주자 중 다수의 국회의원 참여

열린우리당 유재건, 김영주 / 한나라당 배일도, 박세환, 이주호, 정두언, 임태희, 박찬숙 / 민주노동당 조승수 / 자민련 이언재

- 정부인사 참여 : 장하진(여성부), 김근태(보건복지부), 조영환(국가인권위원회), 김선욱(법제처)
- 여성계 리더 이꿈이 : 박인혜(한국여성전화연합),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조현목(여세연), 신숙희(우먼타임즈), 김효선(여성신문)등
- 기업CEO의 참여: 김성주(성주디앤디), 이용경(KT), 남중수(KTF), 이수빈(삼성생명), 신창재(교보생명), 김승수(삼원코리아), 심영섭(우림건설), 김순진(농부)등

2) 재미있는 릴레이

(1) 기업/정부조직/민간조직등 및 연구회등 구성원들의 참여 증가

- 이용경(KT사장) / 김성주(성주디앤디 사장) / 이길여(가천길재단 회장) 이꿈이의 줄은 기업의 임직원의 참여로 릴레이완주. 특히 김성주 이꿈이는 구성원들이 성주 의류를 한 벌씩 구입해서 기부에 동참하여 회사도 좋고

기부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음.

- 장하진(여성부장관), 서명선(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이성재(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외 줄 또한 구성원의 참여로 릴레이 완주
- 이태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이 꿈이는 '사회복지연구회' 소속 회원 전원이 참여하여 주셨고, 한명희(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이 꿈이는 각 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으로 릴레이를 이어가 완주함.

(2) 팬들의 참여

- 이승철, 이소정, 김미화, 진양혜등의 줄은 특히 이들의 팬들로 릴레이가 이어가고 있음. 인터넷을 통한 참여로 소액의 기부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기부에 동참하는 것을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음.

3) 기타

- 2005년도 100인기부릴레이는 '행복한 가족기금'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소외된 가족의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기업, 민간 모두 긍정적으로 참여해주고 있음
- 특히, 5월 100인기부릴레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CJ홈쇼핑과 함께하는 '저소득 여성가장 여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모금방송이 5월 28일(토) 오후 7시20분부터 20분간 진행될 예정. 지금 CJ홈쇼핑에서 스팟광고가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를 약정하시는 분이 많음. 참여하시는 분은 모두 저소득 여성가장의 딱한 사정을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시는 주부들이 많음.

2. 이번 100인기부릴레이의 총 참여인원 및 모금액은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참여인원	모금액	마감 예상 인원	총 약정액
1500여명	약 4천여만원 (물품기부포함)	2,200여명	약 62,000,000 원

* 추산 근거 : 현재 일인 평균 3만원 *추가예상인원 700여명=21,000만원

* 작년 비교 : 총 1900명 참여, 총 약정액 120,000,000원, 일인 평균 기부금 약 60,000원

* 5월 26일 현재/ 인원 및 모금액

* 이꿈이 총 111명 참가

* 발대식이 늦게 진행된 결과 릴레이가 예년과 달리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1회 - 일인당 10만원
2회 - 6만원
3회 - 34만원

*원주줄: 11줄(현재 원주)+28줄(6월 첫째주 마감)총 39줄

원주줄(11줄)

김성주, 남승우, 박우먼패션쇼참가모델, 이길여, 이성재, 이연숙, 이철순, 이태수, 이현숙, 장하진, 최재천,

추가 원주 예상줄(28줄)- 6월 첫째주까지 마감

김지원, 김미화, 김성애, 김형태, 박승철, 서명선, 신석교, 신창재, 심영섭, 오한숙희, 왕인순, 윤정숙, 윤형봉, 이수빈, 이승철, 이용경, 이회호, 장필화, 조형, 조선미, 조흥식, 지은희, 진양혜, 한명희, 유준상, 김근태, 신숙희, 김효선

3. 이번 100인 기부 릴레이의 종합적인 성과는 어떠한지요?

4. 이번에 모금된 기금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질 예정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만이 정상가족이라는 사회적 신화를 깨고,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무자녀부부가족, 노인부부가족, 비혼동거부부가족, 공동체 가족, 미혼모 가족, 국제결혼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인식 개선사업으로서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편견을 해소하는 인식 변화 교육사업
- ② - 다양한 가족의 권리 옹호 및 홍보사업

또한 다양한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가족내 구성원 개인 및 구성원들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족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새가족 및 가족간 문화차이 적응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 자조집단을 통한 지지망 형성 사업
- 가족관계 감화 프로그램

5. 나눔과 기부에 관련해서 이사장님의 의견과 이번 100인 기부 릴레이 참여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하신다면?

6. 한국여성재단이 창립된지 5년이 지났는데 이후 활동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HT:20:07:14	01408	11408	KOREA FUND FOR WOMEN	223936397	NO.144	F.4
-------------	-------	-------	----------------------	-----------	--------	-----

4

국정홍보처 K-TV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1 / 전화(02)3450-2247~8 / 전송(02) 3450-2249

■ 수 신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조정실 홍준석 실장님

■ 발 신 : 국정홍보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영상제작과
문지현 PD

■ 제 목 : <국정 초대석> 지속가능발전위원장님 출연협조요청

1.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는 국정홍보처 소속 행정기관으로 케이블 TV 공공채널 K-TV(CH14)의 운영과 위성방송(ch151), 인터넷방송 등 정부의 중요기록에 관한 영상물 및 간행물 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국정초대석>은 국정전문채널인 K-TV의 정책해설프로그램으로 각 부처 장관이나 관계기관의 수장이 직접 출연해 관련업무와 주요정책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돕는 고급정책대담프로그램 입니다.

3. 최근 야기되고 있는 경제개발과 환경보전간의 갈등을 조화와 보완의 관계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주요업무 및 2002년 제 2차 본회의 결과,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앞으로의 계획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시간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방송일시 : 2002년 10월 12일(토) 예정(오전 8시)

나. 녹화일시 : 2002년 10월 7(월)~8(화) (추후 협의 조정)

다. 제작형식 : STUDIO 녹화

라. 진행자 : 서정욱(前 과학기술부장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PD가 직접 협의하겠습니다. 끝.

(담당PD: 문지현

담당작가: 진미례

K-TV 질문 요지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2기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음. 먼저 소감을 말씀해 주기 바람
2. 먼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 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고 설립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3. 구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맡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4.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자체가 어려운데 그 의미를 쉽게 풀이해 주십시오
5. 제1기 위원회의 활동을 나름대로 평가하신다면.. 1기 위원회 활동중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임. 어떤점이 아쉬웠는지
주요정책의 미비, 40개 주요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이해관계의 구획 불분명, 의 무성, 운영상 어려움
- ⑤ ⑥. 위원회가 UN의 권고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우리 위원회의 특징이라면 어떤 것이라 할 수 있나요
구성원 다양성, 심도있는 검토, 예산, 인력 부족, 이해관계의 조율
- ✓ 7. 북한산 관통도로와 같이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지속위가 무관심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 8. 1기 위원회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로 인하여 진통을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앞으로의 대책은
- ✓ 9. 금년에 40개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검토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잘 활용하면 국가정책속에 지속가능발전이 충분히 스며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10. 위원회가 자문도 중요하지만 자문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11. 의제21 국가실천계획에는 빈곤, 소비행태, 노동, 여성 등 경제·사회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위에서 다루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 12. 지난 8월 남아공에서 개최된 WSSD에서 논의되었던 사항과 이에 대한 지속위의 향후 대응계획은 무엇인가 *이행계획 수립*

13. 지속가능발전은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학계 등 관련분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협력에 문제가 없는지

○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속위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⑥ *이슈* ✓ 15. 외국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는 외국과의 교류협력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복안이 있는지

✓ 17. 위원회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2기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사항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8.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수신 : 박영숙 위원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목 :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정판용입니다" 인터뷰 질의서

발신 : 윤병준 PD

방송일시 : 10. 14(월) 아침 6시 45분

대통령의 지시

1. 우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개발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고려 하는
이러한 국가의 주요정책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려고
국가적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하고
해마다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지구환경보고서의 이행준계형식인
의제 21의 이행상황을 보고하는 등의
일들을 맡고 있는 이구 강대.

2. 환경보존이 국가 정책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3. 환경보존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개발과 환경이란 부처의 불리행령은 총합행령으로
행령의 밀집행령의 관행에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령
중시켜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참여하는 참여행령
으로 행령에 개입하는 노력, PCSD가 정책지향적

4.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지요...?

5. 국립공원 케이블 카 설치 문제 등과 같이...

천예한 문제들이 많은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6. 개발을 너무 제한하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주민들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7. 지속가능발전은 어찌 보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일텐데... 국가간 협력도 필요할텐데요...?

8. 지난달 남아공에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가 열렸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이제까지 10년 동안:

지속가능 → 소이수준

환경보존 → 지속가능

기후변화 → 기후변화

빈곤문제 → 공공부문 - 'P2' 약속이행 촉구

세계화이슈 제기된 사항

good governance의 중요성

투명, 민주적

환경보존
지속가능
인구증가
빈곤문제

파트너십/Initiative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참여에 의한 행동의 변화

개발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러한 국가의
주요정책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려고
국가적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하고
해마다 UN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지구환경보고서의
이행준계형식인
의제 21의 이행
상황을 보고하는
등의 일들을
맡고 있는 이구 강대.

천예한 문제들이
많은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속가능
환경보존
기후변화
빈곤문제
세계화이슈

우 먼 타 임 스

우)100 151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68번지 문화일보사 9층/ TEL (02)730 8500/ FAX (02)723 9500

문서번호 우먼 제2005 03 14

2005. 8. 16.

수 신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참 조

발 신 우먼타임스 채혜원 기자(730 8500, 016 378 4508)

제 목 대표님 인터뷰 건

결	담당	팀 장	사무총장	이사장
재	채혜원	장		
	접수번호: 429	접수일자: 05.10.14		

안녕하십니까?

시사여성주간신문 <우먼타임스>입니다.

우먼타임스는 조화로운 양성평등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이 땅의 여성들을 대변하는 대안 매체로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먼타임스는 “포스트 호주제-여성계 대표들에게 듣는다” 기획인터뷰 기사를 연재 중입니다. 이 기획은 지난주 “호주제 폐지 이후 대체법안에 대한 논의”를 다룬 기사에 이어지는 것으로 여성계 대표들로부터 현재 주력하고 있는 활동, 호주제 이후 남은 여성운동의 과제 등에 대해 듣는 것입니다.

인터뷰 기사는 우먼타임스 사회면에 비중 있게 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먼타임스 인터넷판에 실리게 되며 동시에 인터넷 언론매체인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됩니다. 인터뷰 소요 시간은 약 30~40분(사진촬영 포함)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여성전화연합 등 총 6차례 진행했으며 박스기사로 단체활동소개도 함께 진행됩니다. 인터뷰는 20일 목요일 중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 신: 한국여성재단 박영숙 이사장님

제 목: 한겨레신문 인터뷰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한겨레신문사 문화생활부 공동체팀 이유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있는 여성재단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박영숙 이사장님의 인터뷰를 요청드리오니 부디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아

래-

먼저 인터뷰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의사와 일정을 중간에서
조율해주신 한국여성재단 실무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인터뷰 예정 일시 : 2005년 4월 24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 지면 : 2005년 4월 26일 수요일 36.5도 섹션 <여&남>

(담당자 / 이유진 기자

)

□ 인터뷰 질문 요지

1. 한국여성재단 5월 집중 모금 캠페인 관련

= 한국여성재단 5월 집중모금 캠페인은 어떤 의미로 열리는

것인지요. ^{다들 이렇게 기부 캠페인으로 여중 진행}
 5월의 가장 중요한 캠페인의 의미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딸들에게 선물하는
 4월 2주 여성을 위한 기부의 집중화, 전문화, 체계화 하도록
 1032 캠페인 - 공익활동을 위한 기부 문화 불보리 - 기부문화 확산으로 우리
 어느 정도 성과 여성을 위한 기부 문화로
 5월 2주 -> 제1차 4월 2주 (여성주주회를 통해)

2. 빈곤의 여성화 현상

= 요즘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한국 여성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여성재단 등 - 5월 2주 캠페인}
 현재 상황은 여성을 위한
 현재: 여성노동자 70% 이상주주 (저임금 고용) 많은 여성노동자
 현재: 19.5%의 여성노동자 여성노동 68% 정도는
 여성노동자를 위해 (주주, 10%, 10%) 등 해결을 위한

3. 여성 리더십 관련

= 우리나라 첫 여성총리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계 원로로서,

여성정치인이 드물던 시절, 여성정치인의 역할을 수행해온 선배

여성정치인으로서 총리께 또는 여성정치인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여성정치, 사회참여, 주주에게 선물} -> 여성정치
 장려하고, 주주에게 선물
 여성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주주에게 선물하는 것

4. 여성의 평화운동, 통일운동 관련

= 평양 출신으로 평화운동, 통일운동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올 여성성의 시대에선 전쟁보다 평화, 단절보다는 소통이 중요한 가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성이 평화와 통일운동에 앞장서면 무엇이 달라질지 혹시 예측을 하시는지요.

국제적인 여성 참여 경우 당해국 → 강자, 심상권주의 관행에 휘둘릴 때 유자리

5. 민주화 운동, 시민단체 활동 등

= 지난해 여름 남북여성교류행사에서 이사장님의 진취적이고 젊은 행보, 그리고 마지막날 따뜻한 답사에 다들 감동받고, 놀란 바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뒤 시민단체 활동 등 끊이지 않는 활동에 대한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
20년 25년째이던 의사와는 다른

6. 그외

= 존경하는 인물, 즐겨 읽는 책, 기억에 남는 한 마디

북한인물에게 물어볼
인물의 행보

이런일이 많지 →
이렇게 하는 것을

문제점을 한자리상
주변에 대한 관심

KTV

한국정책방송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21 방송제작팀

TEL 02-3450-2206

FAX 02-3450-2213

수신: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제목: KTV 정책 & 여론 인터뷰 촬영 협조

KTV 정책& 여론 제작과 관련해 인터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여성분
행동능력

1) 프로그램 소개

- 프로그램 : 정책 & 여론
- 방송일시 : 2006년 3월 28 일 (화) 19시

한국정책방송

2) 인터뷰 내용

한영숙씨가 총리로 지명되었습니다. 한국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여성재단 측이 그간 노력하신 성과의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 현 시점 우리 사회에서 여성 총리 탄생이 갖는 의미와
- 여성 정치인들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활동에 제약을 받은 것을 많이 몰 수 있었는데 (황산성, 장상...), 언론에서 여성 정치인들을 폄하하는 것, 남성 중심사회에서 여성들이 정치, 사회 분야에서 겪는 애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 그리고 현재 변화의 기운을 느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능력만으로 평가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더 변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영숙 장관 관련

말씀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영

김선영

김선영

주 ID

보낸 사람: "최문주" <cmjoo73@empal.com>
 받는 사람: <birdjoey@womenfund.or.kr>
 보낸 날짜: 2006년 4월 19일 수요일 오전 11:03
 제목: 박영숙 대표님 - 시민의신문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대표님께

한명숙 총리 지명자

지난 17-18일 한명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늘 오후 2시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 탄생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화 인터뷰를 요청드립니다. (기사는 2시 이후 출고 될 예정입니다.)

1.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소감. *한명숙 총리 지명자*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 *박영숙 대표님* *한명숙 총리 지명자*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 *박영숙 대표님* *한명숙 총리 지명자*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 *박영숙 대표님*
2.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 탄생의 의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명숙 총리 지명자*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 *박영숙 대표님* *한명숙 총리 지명자*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 *박영숙 대표님* *한명숙 총리 지명자*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 *박영숙 대표님*
3. 한명숙 총리에게 바라는 기대와 주문. *한명숙 총리 지명자*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 *박영숙 대표님* *한명숙 총리 지명자*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 *박영숙 대표님* *한명숙 총리 지명자*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 *박영숙 대표님*

시민의신문 최문주 드림

[Redacted signature area]

한명숙 총리 지명자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 *박영숙 대표님* *한명숙 총리 지명자*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 *박영숙 대표님* *한명숙 총리 지명자*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 *박영숙 대표님*

x

한국여성재단-팩스통신

137-88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7-1 국민은행서초동지점5층 TEL:595-6364 FAX:595-6397 womenfund@womenfund.or.kr

수 신	박영숙 이사장님
발 신 (담당자)	홍보팀 황미영대리 담당자 핸드폰 [REDACTED]
발 신 일	2005 년 10월 14일
제 목	우먼타임스 인터뷰요청관련 자료 송부(표지포함 총3장)
요청사항	우먼타임스에서 '포스트 호주제 - 여성계 대표들에게 듣는다' 라는 기획특례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이사장님의 인터뷰 요청관련 내용입니다.
전송자료 리 슷 및 내용요약	*전송자료: 인터뷰 요청 공문 *주요내용: 1. 주요 인터뷰 내용은 여성계 대표들로부터 현재 주력하고 있는 활동, 호주제 이후 남은 여성운동의 과제 등에 대해 듣는 것입니다. 호주제관련 인터뷰뿐만 아니라 여성재단이 주력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내용도 인터뷰 내용 안에 포함됩니다. 2. 인터뷰 수락시 인터뷰는 10월 20일(목)경에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기타(비고)	

2006-3-8 7:40 AM

고도영女士의 자화상

■ 인터뷰 취지

여성노동자들의 자화상
자화상 그리는 것

3월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계 대표에게 한국여성의 자화상과 미래 상에 대해 들어본다. 한국여성의 빛과 그림자를 짚어본다.

첫 번째 자화상
그리는 것

1908년 3월 8일 미국에서 시작된 노동조합 결속의 권리를 주장한 데서 시작된
98년 3월 세계여성대회에서 53년 동안의 여성노조운동 - 여성노동자들의

질문 1. 3월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는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의 날과 관련된 특별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전체 한국 여성의 15.5% 여성노동자
그리고 3이 최저임금제이 아니라 최저임금제

이것도 70%이상의 여성노동자들이
최저임금제와 고용불안에서 시작해서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질문 2. 한국여성의 사회진출과 활동이 갈수록 눈부셔집니다. 그 뒤에 숨겨진 여성계의 피나는 노력을 떠올려보면 감회가 새로울 듯 합니다. 기억에 남는 역사적 순간들이 있다면?

1990년 3월 8일 - 371345명
2005년 3월 8일 - 151만
여성노동조합의 결속 - 빈곤의 늪에서 해방을
여성노동조합의 결속 - 빈곤의 늪에서 해방을
여성노동조합의 결속 - 빈곤의 늪에서 해방을

질문 3. 그러나 여성체단이 발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 빈곤여성가장 지원사업의 배경을 살펴보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눈에 띕니다. 여성에게 인식한 사회문화, 차별적 제도가 여전합니다. 최근 고민과 돌파구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질문 4. 박영숙 이사장님의 주요 이력을 소개해주세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한국여성노동조합총연맹
미래전략

한국여성노동조합총연맹 이사장
한국여성노동조합총연맹 이사장
한국여성노동조합총연맹 이사장

질문 5. 후배 여성 활동가들에게, 딸같은 젊은 여성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취약한 여성 노동자들의 스스로의 인권도 중요

여성, 성평등, 인권, 노동, 환경, 평화, 인권, 노동, 환경, 평화

여성, 성평등, 인권, 노동, 환경,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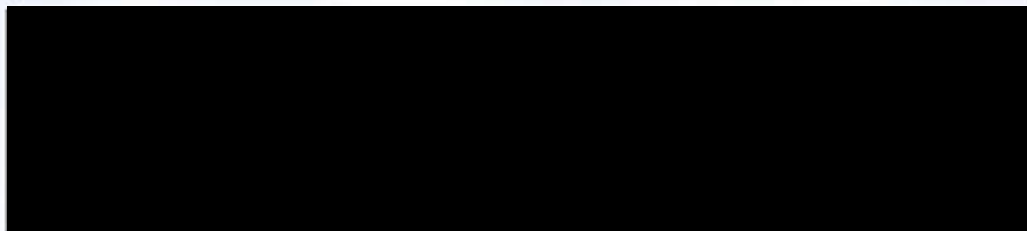
여성, 성평등, 인권, 노동, 환경, 평화

여성, 성평등, 인권, 노동, 환경, 평화

여성, 성평등, 인권, 노동, 환경, 평화

한국경영인신문 인터뷰 요지

1. 여성의 사회 활동 변천사
2. 여성의 사회 활동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현안 문제
3. 여성 경영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4. 21세기 지식경영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게 될 위치
5. 21세기 지식경영 사회에서 여성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
6. 여성의 사회 활동이 늘어남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7. 기존 경영인들(남.녀 포함)이 여성의 사회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원해야 하는지
8. 기타



- 책 제목: 공파노 대로 사노 여자들 5, 22
- 선생님의 질문 시작 끝임! 공파노 대로 사신 것 같은데?
- (맨 끝 쪽을)
- 아드님 기르기 위해 집에 계시면서 '생명문화 창조운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를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 민족화 운동의 경험에 대해
 - 국회의원으로서 한 일 중 환경 관련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 당시 생명문화운동 하던 사관들의 품속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웃 하나 입으로 벌긔 ... 5쪽)
※ 웃은 자장 능가 양의었는지?
 - 62년에 영국을 가서 한 공부 내용.
 - 북부만까지 구경러 보내는 날이면 어감동적.
병식에서
수십 명씩 방문 해댄 선생님은 감동적.
→ 바깥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12쪽) 이 선반 싸움 (13쪽)
 - '정통하고 나니 아이 기르니까 간짜한 기도가 나뉘어' (조 더 자세히 들은 볼됩니다)
 - 여성 재단 만드신 여가 활동.
 - 이 일을 앞으로 꼭 하고 싶으신게 있다면?
 - ~~책~~ '내면은 잊어노 데 즐겁드겔다 하셨는데' 이쪽 ^{위해} ~~어떤~~ 프로그래밍을 식한 환 ~~한~~ 다든가? 이로 인해 변화 감으로 게 있다면

임수근

Fri Aug 9 14:12 page 2

(박소장)

13. 우유병 살리기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생수업체들은 원가문제를 들어 이 문제에 난색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이교수)

14. 정부는 소각장을 대폭 늘리려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각장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박소장)

15.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기술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교수)

16. 기타

① 동계관리계획 이행현황

② 동량미라현황

③ 리량소각

④ 대기오염측정 (시정어장)
계량현황영양현황

⑤ 국산리어인증 (민정어장)
⑥ 기술병인 (사정어장)

⑦ 대정수향 = 관수국

⑧ 리량인정

홍백국 - 불우기

x 박소장님 녹화시간 22년 10월 30분 임수근.

(문의전화: 이교수 398-8271~4)

<연립동선 건물 11층>

Q: 철순을 넘긴 연세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시다! 비결은?

Q: 우선 <한국여성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재단 소개 부탁!

Q: 이번 <100인 기부릴레이>를 지켜보신 소감!

Q: 이번 기부 릴레이는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Q: '릴레이'란 형식이 독특하다! 어디서 착안한 형식인가?

Q: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다! 어떻게 참여를 설득하게 되셨는지?
호의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던가?

Q: 여성들을 위한 민간기금, 해외와 우리나라의 차이가 있다면?

Q: 모인 기금은 어떻게 사용되나?

Q: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Q: 앞으로 여성재단의 또 다른 목표는?

Q: 한국여성재단의 각종 기부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